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3(土)	14(日)
	
구름 많음 1/9℃	구름 조금 -2/6℃

News

- 악취 진동 광양만 ②
- 광주서 '선물달기' 점화 ④
- 김연아 GP 3연패 도전 ⑧

Books

- 고 이청준 '신화의 시대' ⑭

Entertainment

- 불황, 음악으로 달린다 ⑧



- 연말 외화 '흥행전쟁'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염소고기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막걸리 제조 달인' 강진 병영면 김견식씨

술 빚기 50년 외길 '성공 신화'

지난 11일 오후, 강진군 병영면 소재지에 위치한 '병영 주조장'의 입구에 들어서자 알싸한 누룩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공장 부지가 1천㎡(330평)에 불과한 병영 주조장은 외견상 여느 시골 주조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병영 주조장은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를 청주의 본고장인 일본에 수출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일본에 1차로 수출된 복분자 막걸리는 '맛코리'라는 이름으로 일본 여성들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올 들어 3천만여치의 복분자 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했다. 요즘은 일본 업체에서 주가로 주문한 막걸리 2만 병의 납기일을 맞추느라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하다.



50년 동안 술을 빚어온 '막걸리의 달인' 김견식 사장이 일본 수출에 성공한 '복분자 막걸리'를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술 맛을 결정짓는 맑은 물을 찾아 나섰다. 이곳저곳 돌아다닌 끝에 조선시대 병마절도사가 마셨다는 수인산 맑은 물을 발견했다.

막걸리의 원료인 쌀은 값싼 정부미 대신 햅쌀만을 고집했다. 쌀보다 훨씬 저렴하고, 생산공정도 짧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주조장도 많지만, 김 사장은 주조장 인수 후 지금까지 최상품의 햅쌀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최고의 술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제조과정이 비슷비슷한데 무슨 비결이 있겠느냐"면서 "좋은 물과 좋은 재료, 그리고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흥과 정성이 깃든 막걸리는 입소문을 탔고, 주조장도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다. 2000년 들어 때마침 불어닥친 웰빙열풍에 주목하고, 여기에 신세대의 취향을 접목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붉은 빛깔을 띤 복분자 막걸리다. 복분자 막걸리의 명성은 올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까지 전해졌다.

이후 김 사장의 도전 정신은 막걸리를 넘어 알코올 도수 18%의 약주 '청세주'와 증기 냉각 방식을 이용한 브랜드 '사포주'도 개발해 냈다. 이 두 종류의 술은 명절 때면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상품이다.

김 사장은 조만간 오디와 복분자를 원료로 하는 포도주와 브랜드 등 새 상품 4종도 출시할 예정이다. 5년 전부터는 김 사장의 외길인생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두 아들 영희(41)씨와 영환(34)씨도 가세했다.

그는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있는 주조장이지만 소주와 맥주만 빼곤 모든 술을 다 상품화하게 됐다"면서 "두 아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조장으로 만드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소기업, 희망 엔진을 달아라' 행사가 12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타악연구소의 퓨전콘서트인 '곰감 21'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웠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하계 U대회' 유치활동 탄력

재정부, 13억 활동비 지원 등 최종 승인... 市 26일 유치위 구성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유치활동비로 13억원을 확보하게 돼 U대회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국제행사 개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15년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를 최종 승인했다.

재정부는 승인 과정에서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전제로, 유치 활동비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시의 U대회 유치활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6일 정·관계와 재계, 체육계 인사들로 U대회 유치위원회 구성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광주시는 내년 3월14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4월 중순께 현장실사를 거쳐 5월23일 브뤼셀의 스포츠연맹총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는 광주와 대만 타이베이, 브라질 리오와 브라질리아, 캐나다 에드먼턴,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비고, 그라나다 등 6개 국 8개 도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가 나섰으나 러시아 카잔에 밀려 실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난 만큼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유치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구당 빚 4천만원 넘었다

韓銀, 가계부채 676조

불황의 여파로 국내 가계의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가구당 부채가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676조 321억원으로, 전분기인 2·4분기보다 15조7천261억원 늘었다.

이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는 4천544원에 달한다.

개인부문의 금융지표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9월 말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 잔액은 1천714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2천억원 줄었다.

개인 금융자산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2002년 4·4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전화: 1522-332-1111
홈페이지: http://www.hansam.ac.kr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